



손병환 농협금융 회장, 설맞이 군부대 위문 방문
NH농협금융지주는 9일 손병환 회장이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육군 맹호부대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NH농협금융지주 손병환 회장(왼쪽)과 육군 맹호부대 양태봉 사단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금융



장석영 차관, KT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현황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제2차관(왼쪽)은 9일 통신 빅데이터 플랫폼을 주관하는 KT를 방문해 플랫폼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타 플랫폼 및 센터 운영기관과 데이터 활용 기업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디지털 뉴딜의 '데이터 댐' 핵심 프로젝트인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소진공, 설 맞아 전통시장 이용촉진 캠페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촉진 캠페인에 나섰다. 소진공은 지난 5일부터 설 명절 전 결재편의 서비스 등 '전통시장 3대 서비스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오른쪽부터)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등이 지난 8일 대전 한민시장에서 온라인 장보기를 하고 있다. /소진공



건보소 서울강원본부, 소외계층에 생필품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 본부는 9일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계층을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사랑나눔 실천 행사를 실시했다. 올해는 장애인 복지시설 '브니엘의 집', 영등포 무료급식소 '토마스의 집' 서울강원 지역본부 자매결연 4세대를 위해 쌀과 라면 등 생필품을 지원했다. 박상준 브니엘의 집 원장(왼쪽 두번째), 홍무표 건보 본부장(왼쪽 세번째)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보소

쿠광 커뮤니케이션 담당에 백수하 부사장 영입

쿠광이 커뮤니케이션 담당으로 백수하 부사장을 영입했다. 쿠광은 9일 공식자료를 통해 백 부사장을 신규 영입했다고 밝혔다. 백 부사장은 서울신문과 YTN, 문화



는 차병원·바이오그룹 홍보본부장을 역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일보 등에서 기자로 근무했으며 이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기획조정실 상무,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상무로 재직했다. 쿠광 입사 직전에



홍경안의
시시일각

미술비평은 당대 미술 흐름에 주목해 그 원인과 배경을 연구하고 작가와 작품 또는 예술 관련 현상을 비판적 시각 아래 해석 및 분석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궁극적으로 가치 유무(有無)를 따져 미학적·미술사적 정의와 방향을 제시하는 창작활동이다.

모든 비평이 그렇지만 미술비평 역시 사회·제도 등의 우리 사회 속 문제를 되묻고 표상하는 역할도 한다. 미술 가치에 대한 성취과정을 논리적으로 담아내는 것임과 더불어 사회 구조 내 감춰져 있는 것들을 들춰내어 표면화함으로써 새로운 담론 생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비평가란 위와 같은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즉, 자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체험을 기반으로 한 예술 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넘어 예술공동체에 필요한 미래지향적 화두가 형성되게끔 돕는 주체 중 하나인 셈이다.

그러나 현실은 많이 다르다. 동시대 미술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도모하면서도 작가들의 작품이 문화적 자산일 수 있도록 격려하는 동반자로서의 비평

비평의 현실과 너머

가가 없는 건 아니지만(실제 존경할 만한 미술비평가가 몇 분 있다) 부화뇌동과 안일함, 무사안일주의와 게으름, 권력 욕망의 '오염된 언어'를 말과 글로 채우는 이들 또한 드물지 않다.

이들은 개인의 비평적 실현이 집단 전체의 소유로 남는다는 것을 잘 모른다. 올바른 비평의 기능을 통해 사회와 예술을 잇는 매개자 혹은 촉매자로 위치하긴 고사하고, 비평가조차 읽지 않는 비평을 생산하며 '글공장'의 공장장을 자처하기 일쑤다. 이름만 바꾸면 거기서 거기인 상투적인 주제를 비평이라 자위하며 미술관이나 화랑이 선정한 작가들의 명망을 가시적으로 미화하는데 소임을 다한다.

희한하게도 미술계의 고질적인 병폐엔 침묵한다는 공통점도 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개인에 대한 공격은 때로 비겁하다 싶을 만큼 거침없으면서도,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며 부당하게 얻은 미술 권력에는 아무 말 없곤 했다. 뻔히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환히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생경한 이론과 과잉의 관념적 용어들로 채워진 난해한 잡문의 독에 갇힌 한국 미술 비평가들에게 비평가란 좋게 말해 감상의 세련된 버전이다. 비평적 태도는 기회

주의 혹은 보신주의와 같음된다. 적어도 비평의 역할과 비평가의 책무 따윈 기대하기 힘들뿐더러 올바른 판단력을 지닌 사상가와와는 더욱 거리가 멀다.

다들 미술비평의 위기를 말한다. 비평계 내부에선 비평가의 존재가 희미해졌으며 심각해한다. 그런데 아무도 함께 걱정하지 않는다. 이유는 누구나 알고 있다. 설사 앓을 것이 많더라도 시대의 한가운데로 자신을 내던져 예술의 위기를 진단하고 발언하며 문제의식을 공유해야 할 이들이 무언가에 기생하면서 대가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동의와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참다운 비평가는 사회와 예술을 제대로 식별해 공공의 가치로 전화시키는 경계 위의 사람들이다. 굳은 소신과 철학으로 당대 여러 난제들과의 숙명적인 대결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는 그저 어떤 자리와 기회에 관심을 두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

정의롭지 못함을 부정할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비평과 비평가가 설 자리가 없다. 문화 권력의 끝자락이라도 앓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급한 욕망이 자신을 포함한 시험의 무대인 비평 위에 놓인다면 더욱 그렇다.

/미술평론가·DMZ문화예술심사매경 예술감독

우리은행-한국투자공, 해외투자 협력 강화

글로벌 진출 포괄적 협력 업무협약 운용자산 다변화·수익성 확대 기대

우리은행이 한국투자공사(KIC)와 해외사업 공동 발굴 및 투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8일 서울 우리은행 본사에서 권광석 우리은행장과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 양사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양사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글로벌 금융사인 우리은행의 447개 글로벌 네트워크와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의 해외투자 경험을 결합해 해외사업 진출과 투자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투자공사는 2005년 설립한 한국의 국부펀드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해외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 전문기관



지난 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광통관에서 열린 우리은행-한국투자공사의 '해외투자 협력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식'에 참석한 권광석 우리은행장(오른쪽)과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이다. 우리은행은 한국투자공사와 부동산, 인프라 자산 등 해외 우량자산 공동 발굴 및 투자로 수익원 다변화 수익성 강화 기회를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현지화 영업에 박차를 가하는 우리은행은 한국투자공사가 투자하는 회사

에 대한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국가별·지역별 투자환경을 비롯한 해외사업 정보 교환을 통해 글로벌 IB 역량과 영업력을 높여가기로 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인사

-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고병희 △유통정책관 조홍선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배영수
- ◆**국토교통부** ◇국장급 임명 △장관정책보좌관 안성배
- ◆**해양수산부** ◇실장급 승진 △해양정책실장 송상근 △수산정책실장 김준석 ◇국장급 전보 △해운물류국장전재우 △정책보좌관 최현호 △해양정책관 김창균
- ◆**문화체육관광부** ◇3급 승진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장 김동하 ◇4급 승진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안호 △문화체육관광부 세계유산팀 이예나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오명석

부음

- ▲전인성씨 별세, 전영희(JTBC 보도국 탐사기획 2팀장)씨 부친상=8일 경기 안산시 플러스의료재단 장례문화원, 발인 11일, 031-8040-5944
- ▲김현주씨(전 벽산 대표이사) 별세, 최광혜씨 남편상, 김찬용(도쿄일렉트론코리아)·찬호(CJ푸드빌 대표이사)·찬홍(신반포

- 교회 목사)씨 부친상, 이연주·김지홍·이정하씨 시부상 = 8일, 서울성모장례식장 1호실, 발인 11일 오전 7시, 02-2258-5940
- ▲고재열씨 별세, 고광현(분당차병원 진료부원장)·고경현(사업)·고도현(포스코 수소사업실 팀장)씨 부친상, 김수미(청명 한의원 원장)씨 시부상=9일 분당차병원 장례식장, 발인 11일 오전 8시, 031-780-6162
- ▲백규현씨 9일 별세, 백승호(JW신약 대표)씨 부친상 = 발인 11일 오전 7시30분,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84 함양장례식장 101호, 장지 경남 함양군 지곡면 시목선영, 055-964-2000